

**대덕전자  
"제2창업"**

대덕전자(대표 김성기)가 올해 책임경영체 도입을 통한 '제 2 창업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대덕전자 주력품인 10층 이하 중가액 제품들을 중국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막대한 PCB 설비가 모든 물동량을 휩쓸어 세계 경기 회복 수혜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 불황속에서도 지난 2년간 삼성전기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내 연성 기관 업체들이 연간 60% 이상의 매출을 키운 반면 대덕전자는 성장 부진에 시달려 PCB 산업 원년 멤버로서의 자존심에 금이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덕전자는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자 창사 이래 올해 처음으로 사업단위별 책임 경영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회사 김성기 사장은 "그동안 3개 공장별로 생산품목이 중복돼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시행착오도 많았다"며 "올해부터 공장별로 목표를 달리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경영성과물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선, 1공장은 휴대폰용 기관전용, 2공장은 통신기관전용, 3공장은 1공장 과 2공장 물량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생산 체계를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그간 다양한 제품들이 공장을 오가면서 생산한데 따른 납기·품질 손실·관리 어려움을 해소,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네스텍,  
차량용PC 공동개발**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김충훈 <http://dwe.co.kr>)가 차량용 정보단말기 전문업체인 네스텍(대표 최상기 <http://www.nex-tek.com>)와 '차량용 무선인터넷 컴퓨터(일명 오토PC)'를 공동 개발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9월 '차량용 제품과 부품의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공동 개발 일정 및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사가 공동개발할 품목은 더블 Din형 오토 PC 1개 모델과 싱글 Din형 오토 PC 1개 모델 등 최신형 2개 모델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개발에 따른 외관디자인·기구설계·신뢰성 테스트 업무 등과 개발비용을 담당하고, 네스텍은 제품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개발업무를 수행해 이르면 올해 안에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네스텍 관계자는 "네스텍과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이번 계약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오토PC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양사가 윈윈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공적인 오토PC의 개발 및 상호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 향후 OEM양산 판매를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국내 오토PC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유기EL 사업 추진**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올해 차세대 표시장치로 유망한 유기EL 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등 디스플레이 부문을 강화한다. 또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해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25.6% 증가한 2조 6,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김충훈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장은 12일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가전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에 뒤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기EL과 드림세탁기 분야에 신규로 진출하고 디지털TV 사업도 강화한다.

유기EL은 휴대폰 표시창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와 LCD(액정표시장치)의 뒤를 이은 차세대 표시장치로도 각광받는 분야다.

드림세탁기는 최근 2년 사이에 국내 시장이 급성 장하는 분야로 대우는 현재 일본 산요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자체 생산하지는 않고 있다.

대우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경쟁력과 강화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비 470억원을 포함해 총 825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채권단과 협의 중이다.

대우의 매출은 지난해 2조700억원(국외법인 연결기준 24억달러)로 잠정 집계됐으며 올해는 2조6,000억원(국외법인 연결기준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김 사장은 내다봤다.

지난해 1,000억원에 달한 경상이익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그 규모가 8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내수영업 확대와 디지털 영상가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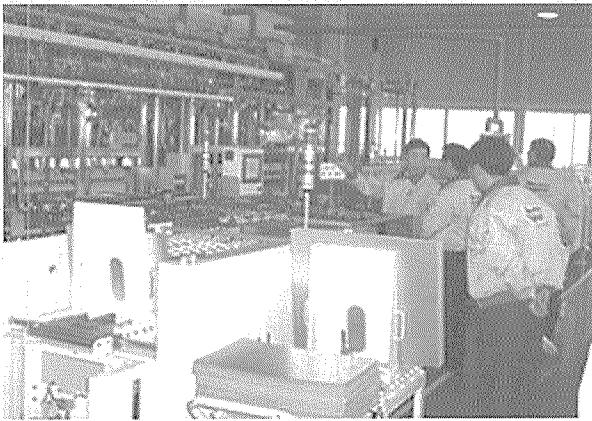
김 사장은 "특히 60인치 PDP TV를 출시하는 등 미국 영상가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지난해 3억달러에 달하던 미국지역에서의 매출을 7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 전자BG,  
차세대 AGP공법 설비 가동**

두산 전자BG가 차세대 빌드업(build up)공법인 'AGP(Advanced Grade Process)공법'을 매스램(반가공 형태의 다층기관)사업에 본격 도입한다.

두산 전자BG(사장 장영균)는 경기도 안산 소재 공장에 128억원 규모의 AGP 공정설비(생산능력 월 1만~1만5000㎡)를 구축하고 'AGP사업 성공이원제'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AGP란 도금방식으로 비아(동범프)를 가공하는 차세대 빌드업 공법



으로 층간접속이 화학적으로 이뤄져 전기적 신뢰성 등이 타공법 대비 우수할 뿐더러 실장면적을 기존 공법 대비 30% 가량 축소할 수 있어 경박 단소화 추세에 부응할수 있는 공법이다. 두산전자 BG는 이번 AGP 공법 설비 구축을 계기로 3월부터 PDA 등 모바일 기기용 기판, 하반기부터 휴대폰용 기판에 AGP 기술을 적용해 양산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측은 휴대폰·캠코더·PDA·통신기기 등 4가지 분야의 AGP 기판 7개 샘플을 납품, PCB업체로부터 AGP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산전자 BG 관계자는 "AGP 공법으로 빌드업 매스랩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PCB 업체는 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자사가 차세대 빌드업 공법 중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전자 BG는 지난해 4월 특허권자인 일본 다이와공업과 AGP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 기술도입을 추진해왔다.

**모토조이, DMB 수신기용 스피커 개발 착수**

모토조이(대표 김병년 <http://www.motorjoy.com>)는 주성대학, 대진전자와 함께 차세대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수신기용 스피커 개발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산업자원

부의 지원을 받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는 DMB 수신기 사업의 일환으로 스피커 부문에는 총 8억5,000만원의 정부 및 민간 출연금이 투입되며 개발기간은 오는 2006년까지 3년이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오는 2008년까지

DMB 수신기 개발을 완료해 휴대폰에 이을 차세대 수출 효과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애니콜, 폴더형 인테나 카메라폰 출시**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형 인테나 카메라폰(모델명:SPH-E3200)은 안테나가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어 휴대가 편위한 제품으로, 무엇보다 스타일리쉬(Stylish) 디자인의 세련미가 돋보인다.

이 제품은 폴더의 윗면과 키패드, 배터리 세 부분에 투톤(2가지) 컬러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 휴대폰 바디라인의 슬림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31만화소급(VGA)카메라를 내장한 애니콜 폴더형 인테나 카메라폰은 12단계 줌, 밝기조절 9단계 기능 등으로 선명한 사진촬영이 가능함은 물론 음성을 포함한 동영상 녹화가 가능해 카메라폰 사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폴더형 인테나 카메라폰의 국내 출시와 함께 국내 휴대폰업계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된 글로벌 광고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2월초부터 케이블광고, 극장광고, 잡지광고를 통해 선보일 스타일리쉬한 애니콜 新광고는 샤넬 NO.5의 모델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에스텔라 워렌(Estella Warren)을 모델로 활용했다.

"안테나는 사라지고 스타일은 살아난다"의 광고카피는 인테나 카메라폰의 제품특성을 살리면서 스타일리쉬함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46" LCD TV 세계최초 시판**

삼성전자가 46인치 LCD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올해 2배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평판TV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크기의 상용화 LCD TV인 이 제품을 국내에 최초 출시하고 올 상반기 중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46인치 LCD TV 『LT 46G1』은

△프로그램리브 스캔 1080p 영상 방식으로 현재 국내 HD급 디지털 방송 영상표준방식(1080i)보다 2배 더 세밀한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12ms(millisecond:1/1,000초)의 고속 반응속도와 상하·좌우 170도의 넓은 시야각은 기존 LCD TV의 단점을 크게 보완하였다.

△또한, 입체음향 기술인 SRS TruSurround XT 기술을 적용하여 영화 및 TV 감상에 최적





화된 성능을 발휘한다.

신제품 『LT46G1』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의 두 가지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1,600만원대이다.

지난 해 세계 LCD TV 시장은 약 250만 대 규모였으며 올해에는 600만 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썸텍, 의료용 카메라 미국·일본 표준 승인 획득**

썸텍(대표 양희봉 <http://www.sometech.com>)은 최근 산부인과 전문 의료용 카메라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는데 이어 치과용 구강 카메라(제품명: Oracam(ST-101))도 일본 후생성(MOH)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 제품은 일본의 타카라 벨몬트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진행되어 받게 된 것으로 향후 일본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썸텍은 이 제품이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자연색의 고품질 영상을 구현하며 가격과 성능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앞으로도 수출이 유망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지난 2002년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기존 미국, 유럽 진출에 이어 일본 MOH 승인으로 일본 시장 공략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회사는 의료용 정밀광학

전자화상시스템 전문 업체로 의료용 카메라 등 화상의료기가 전체 매출의 약 63%에 달한다.

**아남전자, 디지털 TV 시장 공략**

아남전자(대표 남귀현)가 50인치 PDP TV·30인치 LCD TV 등 평판디스플레이패널(FPD) TV를 동시에 내놓고 디지털TV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2인치 음이온 HDTV에 이어 아남전자가 이날 출시한 50인치 PDP TV(모델명 APD-50DA7)와 30인치 LCD TV(모델명 ALC-30JA9)는 국내외 고급 영상가전시장 공략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남전자의 50인치 PDP TV는 3세대 50인치 플라즈마 패널을 채용해 HD영상을 지원하는 해상도(366×768), 명암비(3,000:1), 밝기(1,000 Cd/m<sup>2</sup>)를 구현한다.

특히 고급 영상가전에 채택하는 화질개선용 부품인 파루자(faroudja)의 DCDi 칩셋을 내장, 선명한 화면을 연출한다. 기존의 트루(true) HDTV에 적용돼 호평을 받았던 디지털 사실주의 실현기능인 디지털엑셀런트 트루(DEX TRUE)이미지 회로를 한 단계 향상시킨 Ultra DEX Image 회로를 적용해 해상도와 색표현의 화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30인치 LCD TV는 스피커 일체형

제품으로, 응답속도와 시야각(170도)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아남은 현재 영상가전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오디오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주 및 유럽시장에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해외영업전략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레전자, 작년 매출 1,042억원**

이레전자(대표 정문식 <http://www.erae.com>)가 지난해 PDP TV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83% 늘어난 1,042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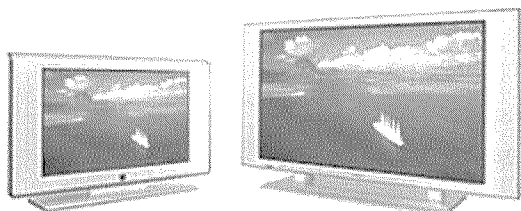
이레전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PDP TV 매출이 전년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한 353억원을 달성하고 휴대폰 임가공 사업의 확대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보다 200억원 가까이 증가한 1,04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04 CES에서 미국의 시어즈백화점측과 만나, PDP TV 공급 협상을 진행중이며 유럽 최대 유통회사인 까르푸사에 올해 공급할 물량이 3,500백만달러에 이르는 등 올해 PDP TV에서만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또 신규로 진출한 LCD TV 분야에서도 2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트로닉스, 고출력 미니 홈시어터시스템 출시**

이트로닉스(대표 강석규 <http://www.inkel.co.kr>)가 고출력 미니 홈시어터시스템 ‘인켈 P805’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은 AV리시버와 DVD플레이어의 가로폭을 기존 제품의 절반 크기인 220mm로 소형화시켜 콤팩





스크 및 VHS Tape간 양방향 녹화가 가능하여 기존 콤비(VTR+DVD)를 대체할 차세대 디지털 레코더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콤비 레코더는 VHS Tape, 캠코더에 녹화한 영상 및 TV화면을

트한 디자인을 연출한 점이 특징이다. AV리시버는 300W의 고출력을 지원하기 위해 6.1채널 디지털앰프를 내장했으며 최신 서라운드 방식인 DTS-ES, 돌비 디지털 EX의 6.1채널 포맷을 지원하는 등 입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음향효과를 낸다.

DVD플레이어는 고정밀 영상을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레시브 스캔(progressive scan) 기술을 적용했으며 DVD 타이틀은 물론 DVD±R/RW, CD, CD-R/RW, MP3, KODAK CD, JPEG등의 다양한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다.

### LG전자, 국내최초 콤비레코더 출시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콤비레코더(모델명 LCR-4900)는 DVD레코더에 VTR을 복합한 제품으로 DVD디

DVD-R/-RW 디스크에 녹화하여 화질의 열화현상 없이 고화질을 그대로 장기간 영구히 보존할 수가 있고, 녹화 시간도 디스크 1장에 최대 4시간까지 녹화가 가능하다.

또한 콤비레코더는 사용자의 취향대로 편집(화면이동/결합/삭제/추가)할 수 있으며 녹화한 화면들을 편리하게 탐색하여 재생할 수 있으며(썸네일(Thumb-nail) 기능), 기존 VTR 방식의 OSD(on screen display)를 보다 생생하고 시각화된 그래픽으로 통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최상의 편리와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한편 이 제품은 DVD/DVD±R/DVD±RW 재생뿐만 아니라 VCD/SVCD/VHS, Audio CD/CD-R/CD-RW/MP3 CD, JPEG/KODAK Picture CD 등 다양한 디스크포맷을 지원하는 호환성을 갖췄으며, 초슬림 규격, Half-Mirror 적용 등 고급형이면서 세련된 첨단이미지를 제공한다.

특히 이 제품은 DVD 레코더와 VTR의 복합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은 80만원대 후반으로 기존 120만원대의 단품 DVD레코더

에 비해 획기적으로 가격을 낮추었다.

### LG전자, 'TV DIOS'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TFT LCD TV를 장착한 「TV DIOS」(6861, 모델명 : R-G694GZ)를 출시했다.

「TV DIOS」는 음식보관, 저장이라는 냉장고의 기본 기능과 TV 라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 Digital 가전제품으로서 LG전자 디지털 가전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제품은 일반 TFT LCD TV 보다도 2배 가량 화면 밝기가 밝은 450 칸델라 수준의 13인치 고휘도, 고화질 TFT LCD TV를 DIOS 냉장실 도어 전면에 설치하여 측면에서도 뛰어난 화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TV를 냉장고에 장착하기 어려웠던 것은 TV에서 발생한 방열을 냉장고 내부로 전달되지 않고 밖으로 완전 발산시켜야 하는 점이었는데, LG전자는 1년여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공기 순환을 최적화한 『다차원 대류 냉각 시스템 (Multi Aperture Flow Cooling System)』을 개발하여 TV에서 발생한 열원을 냉장고 안으로 전달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발산시켜 방열문제를 기술적으로 완전 해결했다.

